

# 금호타이어 고용문제·지방하천 정비, 국가 지원 확대 건의

### 대통령 주재 첫 안전점검회의...광주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전남도, 국가하천 승격·배수영향구간 지정 등 적극 관리·지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안전점검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고용문제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문제 해결을, 전남도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을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도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청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재해 관리 업무와 치안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이 대통령이 이외에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강 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달 현장을 찾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조기사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가 크다.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제주항공 검사 이후 무안공항 재개항

이 늦어지고 있고 지역민의 국제선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주공항 임시취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추진 중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는 줄었으나 자살 사망자는 업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재난안전문자 글자수 상한 확대 등도 요청했다.

강 시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홍수 피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지방하천 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충족된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76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수철을 앞두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방하천 관련 공사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공정률이 20%대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박민수 경남도지사와 김 지사의 발언에 동참하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실 실장을 지낸 임선숙(앞줄 맨 오른쪽)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 수석실' 신설...광주 AI사업 탄력 받나

### 'AI 3대 강국 도약' 과제 추진...국가AI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기대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미래기획 수석실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시 핵심 현안인 AI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광주지역 AI예산으로 7000억원이 추가 배정 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수석실을 설치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AI 수석의 경우 임명령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구현호 전 KT 대표(KAIST 겸임교수) 등이

거론된다.

AI수석실은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한다.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l Officer)를 임명해 가까운 거리에서 이 대통령과 소통하고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국가 전반의 AI 정책을 통합 논의하는 컨트롤 타워를 두겠다고 해설된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대규모 투자 확대, AI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공공 접점 확대 등 AI 확

장에 방점을 찍고 있고 후보시절 대선 공약 중 GPU 5만장 구매 공약 중 많은 부분을 광주에 투입 하겠다고 강조한만큼 광주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장 13일까지 공모기간이 연장된 국가AI컴퓨팅 센터 사업의 광주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AX실증밸리 연계 초거대 AI컴퓨팅 센터 설립 등 광주시가 제안한 30개 핵심 현안사업 중 23개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주의 미래를 확실하게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부 내각 호남 인사 중용폭 확대 관심

### 박지원 의원 고위직 임명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운용기조를 실용과 성장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인사 중용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 헨라인으로 통하는 전남 출신 김현지 보좌관 주변 측근들 중에 호남 출신이 많은 데다,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도 호남 인맥들이 속속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지역안배를 고려해 영남지역 인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무안 출신으로 대동고를 졸업한 김윤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애초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됐지만, 인선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이 가진 차관을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이원장을 다른 자리로 배치할 정도로 호남을 배려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성 출신인 황인권 경호처장, 장흥 출신의 위성탁 안보실장 등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장관에 호남 인사 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이 기재부 출신인데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함에 따라 광주의 AI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초대 내각에도 광주·전남·북 출신 인사 3명 가량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북 출신의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법무부장관에는 박근택(광주 광산갑)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향후 초대 내각 구성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남에도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상호 정부수석 등도 광주와 인연이 있고, 친호남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호남 인사 중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선기간 전국을 순회무전으로 다닌 박지원(해남·진도·완도)의원도 정부고위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내란정권인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협의·결정·집행의 주체인 정부부처의 고위직을 특정지역 출신이 장기간 독점하면서 기반시설, 예산 등의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 됐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 인사 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13일 순천시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순천에서 열리는 '민주시민 토크콘서트'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고등학생 100여 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 명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60여 분간의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참여 신청과 질문을 사전에 모아 토크콘서트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가치와 헌법 정신의 접목을 통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실천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확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온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이재호(90404-1XXXXXX)  
 • 피유족소 : 순천시 서문성리길 90, 2층(금곡동)  
 피상속인 양 이재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년단187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9일

• 상속인 : 1. 이정민(080401-1XXXXXX)  
 순천시 원가곡길 75, 101동 403호 (가곡동, 양유내안아파트)  
 2. 이서연(080428-4XXXXXX)  
 순천시 고지길 57, 104동 403호 (가곡동, 참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상속인 2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전관자모 최희정  
 • 신고기간 : 2025. 6. 9. ~ 2025. 8. 19.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1.이정민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채를 공고)

주식회사 케이디퍼워슬루션(이하 '갑'이라함)과 주식회사 티플워슬루션(이하 '을'이라함)은 각각 2025년 06월 0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 '제53호'의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여 신법에 53호의 제3항의 의거 분할합병인원을 승인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총회를 제출하여 주식이 바뀔때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01107호)  
 "갑" 주식회사 케이디퍼워슬루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파산단1번로 36, 비동(오선동)  
 대표이사 정 양 재  
 "을" 주식회사 티플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파산단1번로 36, 비동(오선동)  
 대표이사 오 선 요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